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섹션을 운영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체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시즌 중에 원정훈련이 아니니...” 대학야구선수들의 현주소

프로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대학선수들이 위기에 놓여있다. 훈련할 곳도, 경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야구만을 바라보고 입학한 선수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전국대는 지난 2005년 야구, 축구, 농구, 육상, 테니스 등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위해 경기도 이전에 설립한 스포츠과학타운을 올 초 폐쇄했다.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 이로 인해 이전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선수들은 종목별로 서울캠프 퍼스나 글로벌캠퍼스(충주)로 각각 쫓아지게 됐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같은 야구부라도 선수들의 과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캠퍼스 생활체육학과 소속 선수들은 아침 일찍 충주로 갔다가 수업을 듣고 서울로 복귀한다. 선수들이 함께 운동을 하려면 오후 8시는 돼야 한다. 게다가 교내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건대부초 또는 덕수고로 원정을 떠나 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야구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는 총 31개교. 하지만 그 중 야구장을 보유한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다. 인하대는 교내 야구장이 작년부터 주차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선수들의 연습 장소가 사라졌다. 코칭스태프들이 훈련 장소를 섭외하기 바쁘다. 동국대도 소속은 서울캠퍼스에 있지만, 훈련은 일산에 위치한 바이오메디캠퍼스의 야구장에서 진행한다. 버스로 왕복 2시간의 거리다.

주말리그의 장소 역시 문제다. 대학 주말리그의 경기는 대부분 학교의 위치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열린다. 수도권과 경인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몰려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열린 '2017 대학야구 주말리그(하반기 조추첨별)'의 107경기 중 단 8경기(북동)를 제외한 99경기가 가장, 황성, 광주, 군산에서 열렸다. 평일에 훈련할 곳이, 주말엔 경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운동만 해도 모자랄 시간이 이동하는데 낭비되는 실정이다. 2005년 오승환 이후 대졸 1년 차 신인왕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김건엽 대학생 명예기자 dkdki202@naver.com

테니스 기대주 정윤성 “차기 넥스트젠, 바로 나”

청춘, 청춘을 만나다

2016 호주 주니어대회 단식 준결승 진출
“정현이 형 활약 자극제...저도 올라가야죠”

올해 한국 남자 테니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 중심에는 정현(21·한국체대·삼성증권)이 있었다. ATP 투어에 안정적인 진입을 한 정현은 이번 시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밀라노에서 열린 'NEXT GEN ATP FINALS'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테니스 신성으로 우뚝 섰다.

정현뿐 아니라 다른 테니스 유망주 선수들 역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권순우(20·건국대), 이택희(19·서울시청) 등 젊은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으로 한국 남자 테니스는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테니스 유망주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다. 바로 2015 US오픈과 2016 호주오픈 주니어 대회 남자단식 4강을 기록했던 정윤성(19·건국대·CJ제일제당)이 그 주인공이다. 시즌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태국에서 퓨처스대회 출전과 동계 훈련을 겸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윤성을 만났다.

정윤성은 올해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주니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자신감도 있었지만, 주니어무대와 프로무대의 격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정윤성은 “솔직히 성인무대에 와서 랭킹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선수 스타일이나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려운 게 많이 이어졌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장점인데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그런 점을 못 살린 것 같



태국 퓨처스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차기 '넥스트젠' 정윤성.

사진제공 | 스포티즌

다”며 이번 시즌을 돌아봤다.

올 시즌 성적은 아쉬웠지만 성인무대 첫 해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윤성은 “작년보다는 철이 많이 든 것 같다. 코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실제 느낀 부족한 점을 훈련을 통해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선배 정현의 'NEXT GEN ATP FINALS'에서의 활약도 정윤성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정윤성은 “(정)현이 형의 경기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는 생각도 했다. ‘나도 저기 나가면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기 부여가 됐다. 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다음 시즌 각오를 다졌다.

내년은 정윤성에게 중요한 한 해다. 정윤성의 1차 목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발탁이다. 정윤성은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지만, 우선 천천히 랭킹을 200위권까지 끌어올려서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드는 게 1차 목표다. 이번 시즌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장점을 살려 최선을 다 하겠다”며 차기 시즌에 대한 목표를 밝혔다.

내년 시즌 큰 목표를 잡았지만 정윤성에게는 목표 달성을 함께 할 동반자들이 있다. 바로 이종사촌 형인 탁정모 코치와 메인 스폰서 CJ제일제당이다. 정윤성은 “탁 코치님은 가족이어서 누구보다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는 분이다. 내 장점과 단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기에 좋다”며

탁정모 코치와의 끈끈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메인 후원사인 CJ 제일제당에 대한 고마움도 숨기지 않았다. “고2때부터 항상 내 큰 꿈을 믿고 묵묵히 지원을 주고 계신다. 해외 투어를 땀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고 CJ에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 웨이트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다. 내년엔 이 분들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정윤성은 태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내년 초에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이 운영하는 스페인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시즌 정윤성이 보여줄 꿈을 향한 도전이 기대된다.

양동혁 객원기자 ydh0621@naver.com

중국 U-20 대표팀, ‘티베트 국기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일부 축구팬, 獨 4부리그서 티베트 국기 걸어
정치적 개입으로 리그 참가 내년으로 미뤄져



지난 11월 18일 중국 U-20 대표팀과 TSV 쇼트 마인츠와의 경기서 사람들이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기를 내걸고 있다.

AP뉴시스

청춘 in CHINA

2012년 런던올림픽 3·4위전. 당시 한국은 일본에 2-0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박종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 적힌 종이를 펼쳤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50조(스포츠에서 정치적 선전을 금한다)를 위반했다며 그의 동메달 박탈을 논의했다. 이처럼 스포츠와 정치 간의 ‘불편한 동거’는 예부터 늘 있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배경은 독일이고, 주인공은 티베트와 중국이다.

지난 18일 중국 20세 이하 대표팀(이하 중국 U20팀)이 TSV 쇼트 마인츠와 독일 4부 리그 첫 경기를 펼쳤다. 정식 경기는 아니다. 중국축구협회가 매 경기 2000만원에 달하는 대

전료를 상대 클럽들에 내고 ‘초청 팀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협회는 올해 초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U20팀에 투자했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 출신 손지하이를 감독으로 배정하고 팀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 4부 리그 참가 역시 그 일환이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중국 U20팀에게는 ‘돈으로 원칙과 명분을 산 팀’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경기는 0-3으로 패했다. 추운 날씨와 낯선 환경 탓에 선수들은 우왕좌왕했다.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졌다. 전방에선 경기 초반을 제외하곤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경기가 20분간 중단됐다. 관중석에 정치적인 깃발이 내걸렸기 때문이다. 이 깃발은 현재 중국 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기다. 한 중국 팬은 티베트 국기를 뜯어내려고도 했다. 독일 빌트지의 팀 오성 기자는 이날 경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티베

트 (독립)시위대는 깃발을 철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중국 팬들은 분노했다. 국가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중국축구협회는 26일 “스포츠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선 안 되며,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결국 중국 U-20 대표팀의 리그 참가는 한 경기 만에 내년으로 미뤄졌다.

스포츠계가 정치행위에 반대하는 까닭은 각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스포츠를 이용해 국가를 결집하고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치행위의 피해자가 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원익 대학생 명예기자 jirrad92@gmail.com

주연료 나무목재, 우드브리켓, 갈탄, 왕겨탄, 톱밥, 박스도 휴지도 싸~악!

다목적난로 50%대폭할인/난방기 80%효과

매장, 카페, 업소, 각종점포, 식당, 학교, 사무실, 교회, 사찰, 군부대, 빌딩, 지하매장, 별장, 전원주택, 주택, 병원, 요양원, 가든, 펜션, 캠핑장, 연구실, 연수원, 헬스장, 강당회의실, 행사장, 화원, 창고, 각종공장, 작업현장, 버섯, 화훼, 농산물하우스, 축사, 돈사, 계사, 실내낙시터 등

원통형(中)

- 높이 91
- 가로 48
- 세로 48
- 무게 46
- 두께 3.3T
- 투입구
- 세로 20
- 가로 30
- 49.5~264㎡ (평수다양함)

원통형(小)

- 높이 82
- 가로 42
- 세로 42
- 무게 26
- 두께 3.3T
- 투입구
- 세로 15
- 가로 20
- 33~132㎡

50%할인가 월27,500원

전국 어디든지 신속배송 / 한정물량으로 조기품절 될 수 있으니 **지금! 주문하세요.**

힐링난방 문의전화 070-8708-4590 / 070-8708-4591

순수국내산 50년 전통의 브랜드 FUJIKA

3KW제품으로 5KW의 열량을 내는 신제품

정말 착한 2018 신제품 후지카 난방기

전기료 폭탄에서 완전해방 (하루) 8시간 기준 한달에 (월)5만원으로 해결

난방면적 : 43㎡~75.9㎡(평형별로 다양)

원적외선 세라믹히터 무해·무취·무소음 무진동 송풍팬 장착

교회, 연수원, 수련원, 현관로비, 사무실, 오피스텔, 도서관, 학교, 학원, 상가, 식당, 병원, 약국, 카페, 건물현관(로비), 난방이 부족한 장소

www.힐링난방.com

상담전화 **070-7882-9900 / 070-7882-9911**